



활동

학술대회 연구포럼 특별간담회 집중강좌
초청특강 연속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

출판 동아시아학 REVIEW

교육

동아시아학과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IUC Inter-University Center 인문대중강좌
한국학연계전공

소식

기관 연구진 매체 보도

수기치인修己治人の 유교정신儒教精神을
건학이념建學理念으로 하는 성균관대학교는
1958년 대동문화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오랫동안 동아시아학 진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본교의 오랜 염원에 힘입어
2000년 3월 1일 창설된 동아시아학술원은
이제 국제 동아시아학 학계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기존의 분과별 학문 체계를
묵수墨守하지 않고, 통합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워크숍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와 인민대학교 철학원 학술교류회



동아시아학술원은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성균관대 유학대학,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중국인민대 철학원과 공동으로 학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교류회에서는 유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 유학이 현대적 유학으로 거듭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균관대 유학대학, 유교문화연구소는 중국인민대 철학원과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학문적 맥락에서 유학의 미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학술 협력 활동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 일시 2025년 3월 25일(화), 15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층 10408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연구단, 중국인민대학교 철학원

초청특강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제17차 전문가 초청 강연회〉

유교문화연구소는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교육연구단과 공동으로 EY한영 장진원 부회장을 초청하여 “검손에 질문을 던지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검손의 모습과 동서양 고전에서 나타난 검손의 의미, 그리고 검손과 관련된 심리학적·철학적 개념과 연구 결과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함께 현대 사회에 필요한 ‘당당한 검손’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일시** 2025년 4월 1일(화), 15시 3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층 10408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연구단

국내학술회의

18세기와 동물



지난 4월 12일, 한국18세기학회는 동아시아학술원의 후원으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8세기와 동물”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건륭제의 사슴 재분류, 동아시아의 박물학과 유럽의 자연사 비교 등 18세기 동아시아와 유럽의 동물과 자연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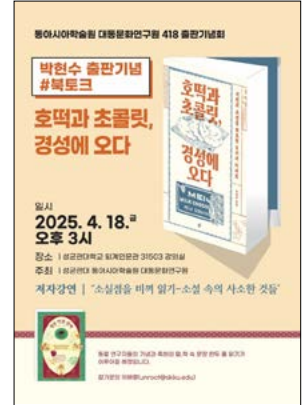
- **일시** 2025년 4월 12일 (토), 14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주최** 한국18세기학회 Korean Society for Eighteenth – Century Studies (ISECS 한국지부)
- **후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초청특강

북토크 “호떡과 초콜릿, 경성에 오다”

대동문화연구원은 『호떡과 초콜릿, 경성에 오다』(2025)의 출판을 기념하여 북토크를 개최하였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소실점을 비껴 읽기-소설 속의 사소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저자 박현수 연구원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동료 연구자들의 책 속 문장 낭독 등 식민지 시기 조선에 유입된 디저트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일시 2025년 4월 18일 (금), 15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5층 31503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초청특강

동아시아 포럼 “량치차오의 패러다임 전환과 일본 및 동아시아”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는 일본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이시카와 요시히로(石川禎浩)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량치차오의 패러다임 전환과 일본 및 동아시아”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을 통해 변법유신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한 량치차오가 일본어 텍스트를 매개로 서구의 근대 역사학을 전유하던 양상을 ‘4대 문명론’을 중심으로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일시 2025년 4월 25일(금), 13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층 10408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고전 문헌의 현대적 해석(东亚古典文献的现代阐释)

동아시아학술원은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호남사범대학교 동북아연구중심·호남사범대학교 외국어학과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동아시아 고전 문헌의 현대적 해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양일간 총 4편의 기조 발표를 포함해 총 29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고전 문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다양한 종류의 문헌 연구를 심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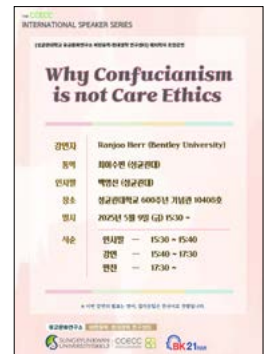


- 일시 2025년 4월 26일-27일(토/일), 8시 30분
- 장소 중국 호남사범대학교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호남사범대학교 동북아연구중심·호남사범대학교 외국어학원

초청특강

해외학자 초청 강연 “Why Confucianism is not Care Ethics”

유교문화연구소는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교육연구단과 공동으로 해외학자 초청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미국 벤틀리대 Ranjoo Herr 교수를 초청하여 “Why Confucianism is not Care Ethics”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유교 윤리가 돌봄 윤리와 유사하다는 기존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교, 페미니즘, 윤리학 간의 교차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번 강연을 통해 유교 윤리의 현대적 해석 가능성과 문화 간 윤리 담론 확장을 고찰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일시 2025년 5월 9일(금), 15시 3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층 10408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연구단



성균중국연구소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조성민 교수를 초청하여 <중국과 한반도 시리즈13>을 개최하였다.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중 경쟁이 단순한 패권 다툼을 넘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전 지구적 의미를 띠게 된 현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이를 통해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 일시 2025년 5월 12일(월), 16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2층 33219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초청특강

동아시아포럼 “중국내 한국사 연구의 현재와 미래”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는 중국 중산대 주매(ZHU MEI)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동아시아학과 졸업생이기도 한 주매 교수는 “중국내 한국사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중국 학계의 한국사 연구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살펴보고, 이후 대학원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 한국사 연구의 경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한국 내 한국사 연구와의 비교도 시도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일시 2025년 5월 22일(목), 10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층 10408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초청특강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제18차 전문가 초청 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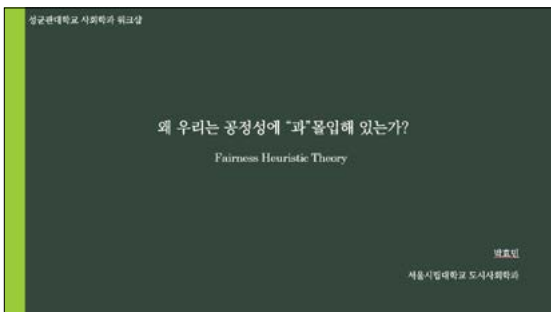
유교문화연구소와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는 성균중국연구소 최소령 책임연구원을 초청하여 “중국의 ‘화해(和譜)’ 담론의 확장’과 전환”을 주제로 초청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을 통해 중국 정치 담론의 한 축인 ‘화해(和譜)’ 개념을 중심으로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과 담론의 전환 과정을 고찰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 일시 2025년 5월 22일(목), 16시 3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층 10408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초청특강

제1회 사회학과-서베이리서치센터 콜로키움

서베이리서치센터는 성균관대 사회학과와 공동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박효민 교수를 초청하여 “왜 우리는 공정성에 ‘과’ 몰입해있는가?”를 주제로 ‘공정성 휴리스틱(Fairness Heuristic)’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이 공정성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특히 공동체의 해체가 공정성에 대한 민감성을 올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 일시 2025년 5월 23일(금), 10시 3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 수선관 9층 61907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동아시아학술원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한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과 공동으로 <2025 제2회 성균국제인문포럼>을 개최하였다. “인문학, 다시 ‘경제’를 사유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동서양 경제사상의 흐름’, ‘역사 속 경제 위기의 순간들’, ‘현실 속 경제 문제들 - 정치, 노동, 주거, 돌봄’의 세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20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이주·공황 등 역사적 맥락 속의 경제 문제를 비롯하여, 연령 불평등, 젠더와 노동, 주거권, 식민지기 세금과 민생문제와 같은 동시대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 **일시** 2025년 5월 23일-24일(금/토), 10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6층 31604호 첨단강의실, 다산경제관 2층 32210호 첨단강의실 / 온라인 ZOOM 회의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한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1. 출판

【신간】

- 공자시대의 실상과 공자사상의 재구성

임태승 저

B2

2025.03.31.



- [대동문화자료총서]

청분실서목-사라진 책들의 목록

이인영 저, 성균관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5.04.25.



- 오위인소역사: 알렉산더 · 콜럼버스 · 워싱턴 · 넬슨 · 표트르 약전

사토 쇼키치 저/이능우 역, 손성준 옮김

보고사

2025.04.25.



- 비사맥전: 독일제국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전기

사사카와 기요시 저/황윤덕 역, 손성준 옮김

보고사

2025.04.



-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생명학 CLASS 01]

인간 국가 인공생명

윤비 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5.05.09.



●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생명학 CLASS 02]

일본 '생명관' 탐구의 현재

스즈키 사다미 저, 김병진 옮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5.05.09.



●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생명학 CLASS 03]

고전과 생명

송재소 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5.05.09.



【연속간행물】

● 『대동문화연구』 129집(2025.03)

- 수록 논문 URL

<https://skb.skku.edu/ddmh/institute/search.do>

● 『유교사상문화연구』 99집(2025.03)

- 수록 논문 URL

<https://kiss.kstudy.com/Detail/Jr?Ins=2120&Jur=26435&Vol=99&Num=0>

● 『성균차이나브리프』 75호(2025.04)

- 수록 논문 URL

<https://sicsarchive.skku.edu/#/sc/brief?sclD2=205>

● 『성균중국관찰』 50호(2025.04)

- 수록 논문 URL

<https://sicsarchive.skku.edu/#/sc/research?sclD2=206>

●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JEAS)』 Volume 25, Issue 1(2025.05)

- 수록 논문 URL

<https://sjeas.skku.edu/#/search/detail/5633>

2. 동아시아학 REVIEW



김경호 · 손성준 책임편집

『열린 동아시아, 인문한국의 비전』
(동아시아학술원총서 1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5년 2월 28일 출간

이 책은 2018년 3월부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 진행한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 7년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의미를 담은 연구서이다. 이 책의 제목을 HK+사업의 과제명, 『열린 동아시아, 인문한국의 비전』로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열린 동아시아’는 단순히 한국·중국·일본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수준을 넘어, 시공간과 학제를 넘나드는 방법이자 시각 그 자체로 고안된 용어이다. 여기에 인문학과 대중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문제의식이 겸비되어 있음은 앞서 출판된 『방법으로서의 열린 동아시아』(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2)가 ‘교양총서’로 기획되었던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요컨대 ‘열린 동아시아’는 거의 모든 학문적 대상과 범주, 그 경계와 미개척지,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동아시아학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며, 바로 여기에 한국 인문학의 비전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크게 열려 있기에 공허한 외침에 그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동아시아’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미 상용어처럼 되어버린 지금, 과연 ‘열린 동아시아’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동아시아학술원 HK+사업단은 「사회적 관계성」, 「난(亂)과 민주주의」, 「열린 지식과 표상」이라는 3대 핵심 연구영역을 설정하였고, 이 책의 제2부, 제3부, 제4부의 챕터명은 이 연구영역의 제명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먼저 제1부 ‘동아시아 연구의 현재와 미래’는 비교 시각을 통해 동아시아적 현상에 주목하였고, 제2부 ‘사회적 관계성’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거기서 파생된 문제의 연원에 대해 탐색하였다. 또한 제3부 ‘난과 민주주의’는 난과 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개념, 혐오의 문제와 여성의 자기표현 등을 다루었고, 제4부 ‘열린 지식과 표상’에서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지식과 사상의 이면을 살펴보고, 이미지의 재구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학이 의미하는 융복합 인문학의 국제적·사회적 효용성을 탐색하고, 젠더·민주주의·번역 등 기왕의 학술적 화두를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확장하는 한편 최근의 글로벌 이슈인 기후 및 환경문제, ‘생명’의 학제적 재인식 등 새로운 동아시아학의 화두를 제기하고자 한다.

인문대증강좌

종로-성균 동아시아 아카데미 2025년 1학기 개강



동아시아학술원과 종로구청이 함께 진행하는 <종로-성균 동아시아 아카데미> 2025년 1학기 과정이 지난 4월 3일 개강하였다. 이번 학기의 전체 주제는 “동아시아 여성의 삶과 예술”로, 김경호 동아시아학술원장의 “강요된 기준과 실제 현상 사이의 괴리: 전근대 동아시아 여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강의를 시작으로 5월 15일 총 7강에 걸친 1학기 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학기. <동아시아 여성의 삶과 예술>

회차	일자	강사명	강의 주제
1	4월 3일(목)	김경호(성균관대)	강요된 기준과 실제 현상 사이의 괴리 : 전근대 동아시아 여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2	4월 10일(목)	손성준(성균관대)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작가 김명순의 삶과 문학
3	4월 17일(목)	김수진(성균관대)	자수와 여성, 침선비(針線婢)에서 산업 역군으로
4	4월 24일(목)	장영은(성균관대)	나혜석, 글 쓰는 여성으로 산다는 것
5	5월 1일(목)	김세서리아(성균관대)	서간과 일기를 통해 본 조선 여성의 삶과 감정
6	5월 8일(목)	박은영(성균관대)	총을 든 전장의 여전사, 니지마 야에
7	5월 15일(목)	고연희(성균관대)	신사임당,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추앙된 여성화가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는 이번 학기 IUC 연구자들과 함께 필드트립으로 구한말 역사의 중심지였던 정동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답사에서는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과 양이재, 고종의길, 구 러시아공사관, 이화학당, 손탁호텔 터, 정동제일교회,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한국의 근대 역사를 되짚어 보는 한편 연구자 간의 교류를 심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일시** 2025년 4월 16일(수)
- **장소** 정동 일대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는 두 차례의 전문가초청특강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강연은 한상언영화연구소 한상언 대표를 초청하여 '북한 영화의 형성과 발전: 1945-1960'을 주제로, 해방기 이후 한반도 남북부에서 영화 제작 산업이 분화해 가는 과정과 정부 수립 이후 북한에서 영화 제작 융성을 위해 시행했던 정책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영화 제작소 등을 복구해 가는 과정 등 해방 후 북한의 영화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성균관대 김성수 교수가 '북한의 신문 미디어와 문학 - 『로동신문』 문예 연구'를 주제로 북한 문학사를 미디어를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과 북한 방문 경험담 등 북한의 정치, 언론, 문학 연구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 **일시** 2025년 4월 29일(화), 5월 13일(화), 15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층 10408호 / 6층 제1 회의실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

● 발표자 및 발표주제

1. 2025년 4월 29일(화)

- **강의자** : 한상언(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 **강의주제** : 북한영화의 형성과 발전: 1945-1960

2. 2025년 5월 13일(화)

- **강의자** : 김성수(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 **강의주제** : 북한의 신문 미디어와 문학 - 『로동신문』 문예 연구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는 2025년 봄학기 콜로키움과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총 5명의 연구자들이 조선 후기 불교와 유교, 한국의 국제정치, 북한의 미디어와 영화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발표를 하였다.

- **일시** 2025년 5월 29일(목), 9시 3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1층 90104호
- **발표자 및 발표주제**

1. 강윤지(예일대 박사과정)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세계관 연구”

“A Brief Overview of Scholarship on Late Joseon Intellectuals’ Worldview”

2. 피아 쉬런(예일대 석사졸업)

“연담 유일(蓮潭 有一)의 ‘상한릉주필수장서(上韓綾州必壽長書)’를 통해 본 조선 후기 불교와 유교의 역동적 관계”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Buddhism and Confucianism in the Late Chosŏn Period as seen through Yöndam Yuil’s ‘Letter to Magistrate Han Pil-su’”

3. 서원원(남가주대 박사과정)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를 통해 본 한국 방위산업 수출 전략”

“Strategic Arms Exportation in South Korea since 2015: Alliance Management and the Evolving Negotiation Capabilities of a Middle Power”

4. 캐롤라인 커니(연세대 박사과정)

“북한 미디어를 통한 대미 정책 분석: 2015년 – 2020년”

“Analyzing DPRK state media for DPRK policy towards the U.S.”

4. 핑징(홍콩대 박사과정)

“1950-1970년대 홍콩에서 상영된 북한 영화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연구”

“A Study on the Image of Women in North Korean Films Screened in Hong Kong, 1950s-1970s”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의 졸업생, 스펜서 렌필드(2021년 여름, 2022년 가을, 2023년 봄) 연구자가 2025년 7월부터 하버드대학교 비교문학과 조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조아 알렉산더(18년 여름학기) 연구자와 폴린 해밀턴(2024년 여름, 2024년 가을) 연구자는 각각 는 하버드대학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연구를 이어가게 되었다.

소식

1. 기관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술원 장영은 초빙교수, 용재신진학술상 수상

동아시아학술원 장영은 초빙교수가 제31회 용재신진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장영은 초빙교수는 저서 『변신하는 여자들』(2022)을 통해 김일엽, 최정희, 모윤숙, 김활란, 임영신, 박인덕, 이화림, 허정숙 등 한국 근대 여성 지식인들의 자기 서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근현대 여성 문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균중국어연구소

『2025 양회 분석 특별리포트』 세계 최초 발간



성균중국어연구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회의)’ 직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5 양회 분석 특별리포트』를 국내외 최초로 발간하였다. 이번 리포트는 양회에서 논의된 중국의 핵심 이슈와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한 것으로, 특히 첨단 산업 육성 정책, 중국 경제 운용 방안 등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을 다루었으며,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반응과 향후 전망까지 제시하였다.

『2025 양회 분석 특별리포트』 링크

<https://sics.skku.edu/sics/issue/sics-report>.

do?mode=view&articleNo=18845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유교문화연구소

공동세미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개최

유교문화연구소비판유학·현대경학연구센터는 세교연구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4월 11일에 개최된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것인가?”를 주제로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여전히 지배적인 이념과 사회 구조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교문화연구소는 공동세미나를 통해 오늘날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들과 민주주의 간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년3월21일, 중국신문사(ChinaNewsService)는유교철학문화연구소 김도일 소장을 인터뷰하였다. 김도일 소장은 유교 사상이 일상생활의 태도와 도덕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유교의 핵심 가치를 현대 사회에 맞게 재해석하여 유교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도일 소장은 동아시아의 공동된 사상적 자원인 유교를 한중 공동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협력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과 지원을 위한 장기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China News Service 인터뷰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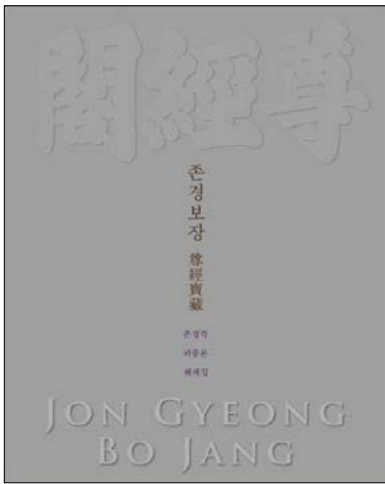
<https://m.chinanews.com/wap/detail/chs/zw/10386963.shtml>

서베이리서치센터는 2025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되는 내용은 한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 문제와 세계 43개국 공동조사(ISSP) 주제인 디지털 사회, 동아시아 4개국 공동조사(EASS) 모듈인 젠더이다. 지난 2003년부터 수행된 KGSS는 한국사회과학의 토대자료로 지금까지 2,200여편의 논문, 저서, 발표, 보고서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통계 및 조사방법론 수업 자료로 많이 활용되어 교육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사회과학원과 학술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자오즈민 비서장(전 당 중앙정책연구실 국제연구국장)과 아태글로벌연구원장 리상양 등 12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성균중국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성균중국연구소와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관세 문제로 촉발된 미중관계의 미래,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안, 중국의 주변외교 전개에 따른 한중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에도 심도있는 교류 협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한 통로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은 최초의 귀중본 해제집 『존경보장(尊經寶藏)』을 발간하였다. 제1부에서는 「성균관과 책의 역사」를 통해 성균관의 도서관인 존경각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성균관에서 간행된 경서(經書)를 소개하여 간행처로서의 성균관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제2부 「고문헌 해제」에서는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이 설립된 이래 수집된 고문헌·고문서 중에서도 특히 귀중본 고문헌들에 대한 서지정보와 해제, 그리고 도판 자료를 수록하였다. 『존경보장』에는 경부(經部) 17종, 사부(史部) 28종, 자부(子部) 41종, 집부(集部) 45종의 고서(古書)가 수록되어 있고, 3종의 고문서(古文書)가 수록되어 있으며, 4명의 서지학 전문가가 서지 해제를 담당하였고, 20여 명의 전문 해제위원이 내용 해제를 담당하였다. 존경각은 디지털화 사업과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소장 고문헌 해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는 지난 2024년 10월 진행된 연속 강연 '성균 생명학 CLASS'의 성과를 책으로 발간하였다. '성균 생명학 CLASS'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적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총 네 차례의 전체 강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에 출간된 『인간 국가 인공생명』, 『일본 '생명관' 탐구의 현재』, 『고전과 생명』은 세 강의의 내용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서베이리서치센터 김지범 센터장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제78회 세계여론조사학회 컨퍼런스(WAPOR 78th Annual Conference, 5.12~15)에 참가하여 “Public Perceptions of Survey Representativeness and Its Correlates”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세계여론조사학회는 사회조사방법의 최근 경향과 다양한 조사기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2024년 7월 개최된 제77회 대회는 서베이리서치센터의 주관하에 성균관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서베이리서치센터는 2025년 ‘한국확률표집온라인패널조사 (Korean Probability Online Panel, KPOP)’를 실시한다. 설문 문항은 미디어, 신뢰, 정치, 정체성, 건강, 사회 문제, 종교, 기후 등에 대한 핵심 문항과 인구학적 특성 문항, 후속 연구 참여 의향 문항, 인센티브 문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구축되지 못한 확률표집 온라인 패널 조사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혁신적인 조사 방법 개발을 촉진하는 프런티어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진

• 고연희(동아시아학술원)

[강연] “민화, 그 매력과 문제”, 정독에서 정독하기(총 4회)

“제1강 책거리와 문자도 누구의 문명과 도덕인가?”(2025.04.03.),

“제2강 금강산도와 팔경도, 산수 구경, 어떻게 상상했나?”(2025.04.10.),

“제3강 동식물을 그린 화조도, 무엇을 위한 비유와 상징인가?”(2025.04.17.),

“제4강 구운몽도, 삼국지도, 고사인물도, 그 ‘연극성’의 의미는?”(2024.04.24.)

•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칼럼] “고투의 시간과 디저트”, 성균관대 동창회보, 2025년 5월호

3. 매체 보도

• 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최초의 귀중본 해제집, 존경보장(尊經寶藏) 발간”, 한국강사신문, 2025.05.08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622>

• 성균중국연구소

“中, 양회서 5%성장 고수하며 달성 자신... 트럼프 리스크는 변”, 글로벌경제신문, 2025.03.11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777>

“트럼프, 4월 중국 방문 가능성... 만남 장소 두고美中 신경전”, 조선일보, 2025.03.11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3/11/

CG4HN44T5BBQHF36ZAZI5TV3N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中양회서 사라진 평화통일...무력행사 가능성 시사?”, 연합뉴스, 2025.03.12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87200083?input=1195m>

“AI에 ‘800조’ 퍼붓는 중국...한국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시사저널, 2025.03.1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915>

• 김경호(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 조선시대 과거시험 수험서인 보물 유설경학대장에 대한 첫 설명서 내놔”, 뉴데일리, 2025.05.07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7/2025050700146.html>

• 고연희(동아시아학술원)

“정독도서관, 고연희 교수 강연 「민화, 그 매력과 문제」 운영”, 강사뉴스, 2025.03.1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915>

• 김영죽(동아시아학술원)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편지 보내 아들에게 추천한 책”, 오마이뉴스, 2025.05.1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191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배항섭(동아시아학술원)

“〈춘당록(春塘錄)〉, 〈의산유고(義山遺稿)〉”, 전북일보, 2025.03.20

<https://www.jjan.kr/article/20250318580265>

“민주주의의 뿌리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 탄생”, 전민일보, 2025.04.16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291>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45) 이용목(李容穆)의 『백석서독(白石書牘)』과 이범석(李範奭)의 『확재집(確齋集)』”, 전북일보, 2025.05.14

<https://www.jjan.kr/article/20250512580315>

• 이회옥(성균중국연구소)

“[이회옥 칼럼] 소비·과학기술로 무장한 중국의 미래”, 서울경제, 2025.03.11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7BHW4Y9>

“미국이 중국 때리면 어부지리?…한국 ‘G2 대결’ 최전선 되면 안 돼”, 경향신문, 2025.03.2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0600015>

“중국, 언제까지 감정의 대상인가… 젊은 세대의 냉소가 위험하다”, 중앙일보, 2025.04.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998>

“[이회옥 칼럼] 美, 중국의 수를 잘못 읽었다”, 서울경제, 2025.04.14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IQ33ID6>

“미·중 넘어 일본·인도·유럽·호주·캐나다와 연대 강화해야”, 중앙일보, 2025.04.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766>

““낙관론 금물”…미·중 패권다툼 속 한국의 생존 전략은?”, 중앙일보, 2025.04.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956>

“국회, ‘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발족…초당적 외교안보 전략 모색”, 신아일보, 2025.05.20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298>